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¹⁾

Urban Community Formation Process in the City of Seoul: Case of Seodaemun-gu Community Building Project

이은지 Lee Eunji²⁾, 최현선 Choi Hyunsun³⁾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community building process in urban context, especially in the City of Seoul. Community is defined based on spatial relationship as well as social relationship.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nstitutionalized support systems for community building, and has implemented some programs for two years. This article uses qualitative approach to analyze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The analysis based on the process of people gathering, organizing,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he understanding of community building process, and give policy implication for future community building program. In the community building process, commun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t is not only communication among people, but also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Keywords: Community, Community Building, Formation Process, Seoul

I. 서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개발은 정부 및 민간개발업체가 투입하는 외부자산에 의한 하향식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쇠퇴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물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이 상실되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배제된 개발방식은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지방자

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역개발이 아닌 커뮤니티, 즉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과 개발의 시도(마을만들기 등)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형성은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

- 1)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8024747).
2) 수도권학동경 사회과학연구과 법정치학 박사과정(제1 저자) |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Dept. of Law and Politics, Tokyo Metropolitan Univ. | Primary Author | eungilee@gmail.com
3)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Associate Prof.,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MyongJi Univ. | Corresponding Author | hyunsunchoi@gmail.com

고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발의 특성에 기반하여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지역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마을 주민 모두가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도시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이며 물리적 경계가 분명치 않다. 게다가 서울은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약하고, 거주기간이 짧으며, 직장과 주거의 분리로 중간인구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도시 지역에서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와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결과를 토대로 도시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형성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효과 또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사회 개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와 실천을 위한 준거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자산의 활용과 주민참여 제고의 측면에서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1) 우리나라 지역사회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개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리적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어 왔다. 지역 내 필요로 외부의 투자를 유입하여 지역을 개발하였지만, 원주민들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배제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공동체는 단절되었다(김용웅 2008).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질적 성장에 대한 요구 증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의 복합적인 사회 변화로 인하여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 중심의 중앙집중형 정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지역분산형 전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은 더 이상 낙후지역의 물리적 재개발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지역사회 개발은 해당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가치를 스스로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단순히 물리·공간적 범주의 지역개발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 모든 사회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장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경제·물리·환경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커뮤니티 개발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그 공간 속에서 상호관계성, 즉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움직임은 1960년대 초반 부산의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근대화화 산업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도시지역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이 일어났으며, 이후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기초한 지역운동, 각 지역에서 벌어진 생협활동운동, 환경과 생태공동체운동으로 발전되었다(이종수 2008).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와 세계화의 영향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종일 2006). 1990년대 초반부터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인 ‘마을만들기’가 시도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장허물기운동, 마을도서관 만들기, 친환경 주차장 만들기 등이 ‘지역, 마을, 동네’와 같은 생활 현장과 밀착되어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후 민간 차원에서 ‘운동’으로 진행되어오던 마을만들기는 2000년대 들어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구체화된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과거의 압축 성장이 초래한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그리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만들기’라는 말의 의미가 초기에는 주로 운동적 목적의식을 담았다면 이후에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과 계획의 특성을 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2010년부터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관 주도형 하향식 지역개발,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공간개발 방식

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장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2)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개발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단순한 환경정비 외에도 문화·환경·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마을만들기는 진행 과정 속에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강조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그 공간 속에서 상호 관계성, 즉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본 논문은 현대 도시사회에서 공동체가 어떤 형성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공동체 형성 과정은 일반적인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다른 특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경계 속에서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경계를 갖고 한 지역의 주민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 도시에서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이며 물리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농촌과 달리 도시는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공동체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은 오랜 수도로서 역사적 특수성과 도시가 갖는 일반적 보편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이 지닌 도시공동체는 지역적 성격과 아울러 도시의 일반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2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현황조사 및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였다(유창복 201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은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마을계획을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012년 한 해 동안 부모커뮤니티, 마을미디어, 마을 북카페, 마을 예술창작소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중복 지원을 포함하여 400개가 넘는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마을상담원 운영, 초기 단계 주민모임이 마을공동체로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마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공무원, 시민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추진되었다(유창복 2012).

사업의 2차 연도인 2013년에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간으로 마을공동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하여 총 22개 사업에 약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주민제안사업으로 197억 원, 기반조성사업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 사업들은 부모커뮤니티 및 공동육아 활성화,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북카페 같은 공간 조성 지원, 마을기업과 청년마을활동 지원 등이 있다.

2.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 개발의 패러다임이 지역공동체 중심, 즉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로 변화한다는 것은 지역의 목표 및 비전 설정부터, 개발추진 방식, 평가에 이르는 과정 속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커뮤니티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개발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형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커뮤니티 개발의 정의

커뮤니티는 본래 전근대 사회의 촌락공동체를 가리키는 개념이었으며 동질적인 사회구성원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지역사회를 통칭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지역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었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커뮤니티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처럼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와해되거나 위축되었던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개발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커뮤니티(Community)와 개발 혹은 발전(Development)의 합성어다. 개발 혹은 발전은 사전적으로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실현하며 뜻이나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연합체를 결성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개념을 결합한 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의 정치·경제·문화 측면에서 양적·질적 수준의 향

상, 즉 지역단위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DeFilippis and Saegert 2008; Gans 1968). 1956년 UN 특별분과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커뮤니티 개발은 어느 커뮤니티의 경제·사회·문화적 제 조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로 하여금 국가적 계획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과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본래 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Armstrong and Taylor(2000)는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된 연구 문헌의 분석을 통해 1980년대까지 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의 성장과 부의 증진 등 주로 경제적 영역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에 치중하던 커뮤니티 개발은 범위를 넓혀 환경적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결속, 문화적 다양성 등을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커뮤니티 개발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방안의 하나로 공동체적 사회관계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시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해되어 왔다(Jacobs 1961; Christensen and Robinson 1989).

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한 Ploch(1976)는 커뮤니티 개발을 “커뮤니티 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과정에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James, Kim and Jerry(1989)는 커뮤니티 개발을 “일정한 지역성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개입을 하는 등 사회적 활동 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학자마다 다른 관점으로 커뮤니티 개발을 정의하고 있어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연구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커뮤니티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활동으로 범위나 대

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커뮤니티 개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에 대한 담론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커뮤니티 개발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물리적 기반의 지역개발 정책의 대안으로 주민참여·사회적 유대감·상호 협력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공동체 기능이 상실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해결해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커뮤니티 개발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개발을 커뮤니티 형성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조성되는 커뮤니티가 전통사회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을 단위로 다소 개방적인 형태의 지역적 정체성과 연대의식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권익을 형성해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

모든 도시 또는 지역사회는 각각 고유성을 지니므로 커뮤니티 개발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모형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가 없다. 또한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학자들의 실천방안과 활동 안내 원칙에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의 연구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커뮤니티 개발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Hyman(2002)은 주민모집-어젠더 형성-지역사

회 조직화-지역사회 활동-발표와 메시지 전달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개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고 보았다. 우선 주민모집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어젠더 형성단계에서 어젠더는 전체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는 기존의 지역사회 내 조직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새로운 조직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실제의 현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활동 단계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실제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개발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한다. Hyman은 이러한 커뮤니티 개발 과정이 지역사회에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Singh(2003)는 커뮤니티 개발 과정을 개발(developing)-육성(nurturing)-비전 실행(implementing visions)-지역사회 연계(connecting neighborhoods)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주민들을 모집 및 조직화한다. 육성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사정, 비전계획이 포함된다. 비전실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실천 활동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단계는 성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포럼 개최, 네트워크 형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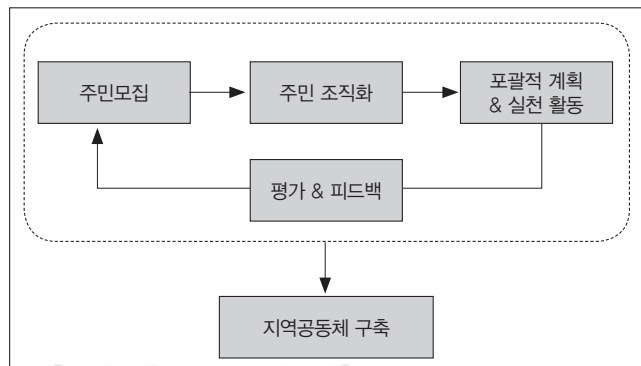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민의 참여 수준, 파트너십의 형태, 사업의 활동 유형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는 지역 만들기의 과정을 꿈 그리기-보물찾기(사람 세우기, 공동의제 및 일감 발굴)-조직화와 합의-민주적 합의체 및 전략의 수립-실천-나눔-평가 및 환류의 7단계

로 제시하고 있다(이종수 2008). 구자인 외(2011)는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과정을 활동 내용에 따라 기초 형성기-기반 구축기-발전기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마을만들기의 활동단계별 추진전략을 소개하였다. 이규선, 성순아, 황희연(2012)은 참여 주체와 사업전략 및 성격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성장단계를 주민조직과 행정이 중심이 되어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을 수립하는 '도입기'-전문가가 투입되어 체계적인 마을만들기의 마스터플랜을 제작하는 시기인 '형성기'-참여주체의 영역이 확장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한 마을커뮤니티의 기반을 형성하는 '발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커뮤니티 개발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일반적인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주민모집-주민 조직화-포괄적 계획과 실천 활동-평가와 피드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개발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주민모집 단계는 커뮤니티 개발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지역사회 리더를 발굴하며, 지역의 자산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주민 조직화 단계는 지역주민, 지역사회 리더들을 조직

그림 1_ 커뮤니티 개발 과정



화하여 커뮤니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포괄적 계획과 실천단계는 커뮤니티 개발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다. 지역사회의 욕구, 문제를 파악하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예산에 기반하여 커뮤니티 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III. 연구분석의 틀

1.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개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행해진 마을 만들기 사례의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엄밀히 말하면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은 커뮤니티다. 커뮤니티는 지방자치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인식을 공유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연구 여건상 연구자가 공동체의 범위를 파악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인 자치구를 확장된 공동체의 집합체로 가정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본 연구의 인터뷰가 마무리된 2013년 11월까지로 설정한다.

마을 만들기의 추진배경과 이해관계자, 마을공동체의 형성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만나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성적(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방법들 가운데 본 논문은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참여 관찰의 방법을 활용한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주민, 마을 활동가, 공무원, 의회 의원 등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심층 인터뷰의 대상이다. 심층 인터뷰는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 뿐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의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표 1〉 참조).

표 1_ 연구자료 수집방법

인터뷰 기간	• 2013년 11월 13일~2013년 11월 25일(총 6회, 28인)	
인터뷰 형식	• 집단·공동체별 면대면 심층 인터뷰	
인터뷰 대상	• 공무원	•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 T/F팀 공무원 1인, 총 1회
	• 의회 의원	• 서대문구의회의 의원 1인, 총 1회
	• 마을활동가	• 서대문희망네트워크 소속 1인, 서대문 마을넷 소속 1인, 서대문 사회적경제 하모니센터 소속 4인, 총 3회
	• 주민	• 장소: 서대문구 거북골마을 사랑방 • 참석자: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2인, 총 1회 • 방법: 마을네트워크 파티 참여 및 관찰

2. 연구대상

본 논문은 서울시 서대문구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서대문구 내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형성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하향식 지원이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민과 밀착된 자치구 단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형성 과정과 분석을 통해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개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협조적인 자치구 사례를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성공 사례로 언론에 많이 소개된 곳은 제외한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자치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선택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뉴타운 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온 지역이다. 2012년 실시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동 기초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에는 가재울마을, 개미마을, 충현동마을, 남이마을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마을공동체가 발견되었다. 또한 초보적인 단계의 마을활동을 포함하면 총 11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2). 서대문 사람숲(홍재숲 공동체, 보듬다듬 공동체, 흥은숲 공동체, 거북골숲 공동체, 동네꼬맹이 공동체, 신촌숲 공동체), 서대문구부모육아협동조합, 거북골마을 공동체, 개미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비영리단체 문화촌, 마을공동체 꿈틀, 서대문 동네한바퀴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인 곳이다.

신촌상업지구나 연희동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돌봄, 교육, 주거 등 공동체적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으며 이는 마을공동체라는 방식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다. 또한 서대문희망네트워크, 서대문삼삼오오여성리더, 서대문먹거리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주민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부지회, 탁틴내일, 너머서와 같은 사회단체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청년 마을기업인 얼티즌, 2011년 행정안전부(현재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문을 연 A카페와 B카페,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하는 도농원 등의 사회적 경제의 씨앗이 될 마을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두터워짐에 따라 재개발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동네 서점 홍익문고를 주민들이 나서서 지켜내거나,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공동체의 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자료 분석방법

본 논문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실시한다. 커뮤니티 개발과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는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 등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실시

표 2_ 인터뷰 주요 질문

주민 모집	·공동체 형성의 계기
조직화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 ·조직화 과정
포괄적 계획과 실천활동	·지역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변화된 점

하여 정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이면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형성 모델을 도출하는 데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연구 절차의 엄격성을 확보하고 일반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사례 연구의 비교 학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민, 마을활동가, 구의원, 구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표 1〉 참조). 인터뷰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식으로, 응답자에게 비슷한 속성을 지닌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주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민감한 주제나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임도빈 2009). 본 논문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개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준비와 계획 단계에서 인터뷰의 틀과 질문지를 구성 하였으나(〈표 2〉 참조), 실제 인터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거나 인터뷰의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에게는 주로 본인의 이야기와 사례를 중심으로 응답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면 점차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내용이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자 개인의 행동이 그 행동이 일어난 맥락(Context) 안에 놓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하루는 서대문구 거북골마을 사랑방에서 열린 주민모임에 초대받아 참여·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의 핵심 주체를 파악하고, 그들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게 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관련 여러 네트워크 모임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형성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IV.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분석

본 장은 서대문구 마을만들기의 계획수립부터 실천까지 참여한 주민, 마을활동가, 구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개발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1.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앞서 커뮤니티 개발에서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을 ‘주민모집-주민조직 조직화-포괄적 계획과 실천활동-평가와 유지’로 정리하였다. 이론을 통해 정리한 커

뮤니티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과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 보았다.

1) 주민모집

(1)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형성

서대문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결과, 서대문구 내에서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문제를 나와 가까이 사는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고,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모임의 명칭은 없었지만 현재 ‘서대문희망네트워크’라 불리는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주민들이 자신의 관계망을 확장하여 마을과 공유하고자 한 것이 마을공동체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웃과의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 그러던 중 2011년 어느 날 서대문구에서 교육감 특강이 있었고, 그 뒤풀이 장소에 쫓아갔는데 서대문 지역에 시민단체 및 주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구나. 신기했었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민들이 서로의 공통된 생각을 발견하고 주민 네트워크 모임을 형성하게 된

자리다. 주민들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 공식 업무를 마친 후 서로 모여 여흥을 즐기는 ‘뒤풀이’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모임을 결성하였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 내에서 지역자치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은 어떤 거창한 목적 의식을 가진 활동은 아니었다. 모임이 시작되고 1년간은 계속해서 즐겁게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서대문구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뒤풀이에서 서대문구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 모였다. 그래서 주민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만나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가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1년 정도 가졌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주민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자주 만났다. 주로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형태가 아닌, 즉흥적으로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번개모임’이 자주 이루어졌다.

“서로 알아가면서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활력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재밌게 만났다. 그때에 번개를 굉장히 자주하고, 재미있어서 계속 만나다 보니 만남이 지속되고 …… 나중에야 이런 만남이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짬질방번개, 와인번개…… 누가 아프다 하면 병원도 같이 가고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며 모여서 신나게 놀았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2) 역량을 갖춘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 모집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 중 주민모집의 단계에서는 역량을 갖춘 마을 리더의 역할이 컸다. 앞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식의 형성부터 마을넷이 형성되기까지 다양한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였다. 현재 마을넷이나 네트워크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다.

“마을 일을 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였다. …… 시민단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웃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5일, 서울)

성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의식 있는 리더의 헌신적인 모범과 설득으로, 마을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마을 리더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마을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며, 주민대표로서 각종 마을문제 협의의 중재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 리더의 존재 여부와 그의 역량은 마을공동체

의 역량, 그리고 거버넌스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주민조직화

(1) 마을네트워크의 형성

서대문구 내에서 이러한 모임이 계속되던 중에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서울시는 지역에서 마을사업을 담당할 민간의 주체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자치구의 마을담당부서는 대부분 2~3명으로 구성되어 마을공동체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주민들을 마을 관계망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정책과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에는 서울시가 나서서 마을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을 관련 사업을 해오던 풀뿌리 단체, 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민간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마을네트워크(약칭 ‘마을넷’)이라는 열린 공론장이 제안되었다.

“2012년 서대문구에서도 마을만들기가 화두가 되면서 서대문구희망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밖에 여러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서대문 마을넷(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을 준비하게 되었다. 서대문희망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만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 서대문 마을넷을 2013년 3월에 창립하였고, 마을공동체를 화두에 둔 모임이 되었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마을만들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대문구의 마을넷 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대문희망네트워크 외에도 서대문삼삼오오 등 서대문구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마을의 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대문 마을넷'을 결성하였다.

서대문구 마을넷은 서울시의 마을생태계조성특화사업단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마을사업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관 거버넌스에서 민간 영역이 힘이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이다. 자치구에 마을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마을생태계조성특화사업단 사업의 지원을 받은 마을넷이 민간 영역으로서 행정과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 의사소통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주민의 조직화단계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친밀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협력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친밀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야 해야,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다자 간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 '카카오톡'을 활용한 의사소통

서대문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스마트폰용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역할이 컸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로, 한 대화방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이 함께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이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재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인 '서대문 마을방'에는 112명(2013년 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 지역신문보다 홍보효과가 크고, 마을 정보를 얻기도 좋다. 어제 내가 '명지대 근처에 식탁보 살 곳 있나요?'라는 질문을 카톡방에 올렸는데 네이버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 네이버에서도 알 수 없는 지역의 촘촘한 정보들을 지역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카톡방을 통해 생활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서대문 마을방'은 서대문구 주민, 마을활동가, 마을넷과 사회적경제센터 간사, 서대문 내 마을기업 종사자, 구의회 의원 등 서대문구에서 마을공동체와 관계가 된 다양한 사람들이 하루에 약 100건 이상의 대화를 나눈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은 아침인사부터 일상의 이야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마을라디오 선곡리스트, 마을잔치 등에 대한 홍보 등으로 다양하다. 개인의 일상부터 마을의 대소사, 심지어 직거래장터로도 활용되는 메신저 대화방은 검색엔진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나 기획이 창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마을 관련 정보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통되고 공유된다.

“카카오톡 모임에서 일상을 나누고 이슈도 계속 올라와서 토론도 벌어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카카오톡 안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활발하게 일들이 추진된다. 이야기를 나누다 '재미있을 것 같다' 싶으면 몇 명이 시작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붙고, 이들이 또 새로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일을 진행하

고 이런 식이다.”

- 마을활동가 B(2013년 11월 18일, 서울)

스마트폰 메시지의 특징상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정보를 취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확인한다.

“카카오톡 방이 없을 때에는 온라인 카페(인터넷 커뮤니티)로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반응속도가 느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연락을 해야 했다. 카카오톡 방을 사용하다보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다. 눈팅(글쓰기, 리플달기 등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만 읽는 행위)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대화방에서 얻는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해서이지 않을까?”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메신저 대화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점차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메시지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점차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정기적인 모임

마을 내에서 마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즉흥적으로 시간이 되는 주민들끼리 모이는 ‘번개모임’을 자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및 마을공동체가 형성된다. 꼭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큰 목적 없이 서로가 좋아서 만나다 보니, 신뢰

가 쌓이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번개를 굉장히 자주하고, 재미있어서 계속 만나다 보니 만남이 지속되고..... 나중이야 이런 만남이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짬짬 방번개, 와인번개 누가 아프다 하면 병원도 같이 가고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며 모여서 신나게 놀았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3일, 서울)

(3)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마을공동체의 협력

새로운 마을공동체들은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도 갈등을 최소화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청에서 주민자치조직, 직능단체와 같은 기존의 마을의 섹터에 존재하던 조직들에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민-민 거버넌스 차원에서..... 따라서 수월하게 드러나는 갈등 없이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조직들이 마을공동체로 편입할 수 있었다.”

- 마을활동가 B(2013년 11월 18일, 서울)

주민자치조직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동마다 조직되어 있던 조직이다. 이들은 부녀회,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협회 등의 관변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연령대가 50~60년 전에 태어난 세대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유지 역할을 해왔다. 이들의 가부장적인 문화, 관변적인 성격 등은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나, 이들이 지역의 젊은 층과 소통하고 여성들이 협동적

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배려하며 함께 협력해나가고 있다. 이들도 지역사회의 유력한 주체이고,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지닌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산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괄적 계획과 실천활동

(1) 공동체 사업의 계획 및 실행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택가에 위치한 거북골마을 사랑방은 서대문구 내 주민들의 다양한 소모임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다양한 마을행사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주택 건물에서 2층은 가정의 살림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층이 2013년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리모델링을 거친 후 ‘거북골마을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거북골마을 사랑방이 만들어진 계기는 2011년부터 서대문구 내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모임이 잦아지면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사랑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일은 주로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이들을 데리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되고, 뒤푼이를 하다보면 저녁시간에는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참여하기가 어렵고,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들 걱정 없이 마을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증이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엄마들의 모임이 어렵고, 돈도 많이 들다보니 ‘사랑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다.”

- 마을활동가 E(2013년 11월 25일, 서울)

당시 마을 사랑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러던 중 서대문구부모협동조합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계약한 공간이 행정 제반의 문제로 좌초되고, 마을공동체의 힘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였다. 4일 안에 계약 잔금 9천만 원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 1천만 원을 날릴 상황이었을 때, 조합원들은 마을사람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선뜻 1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언제 돌려받을까도 모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4일 만에 9천만 원을 모금하여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마을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가 없었다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이 2013년 초, 현재 거북골마을 사랑방 위치를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계약을 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반경 50m 이내에 주유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걸려, 계약금 1천만 원을 날리게 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당장 우리 가족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었기 때문에..... 2층은 우리 가족이 보증금을 내고 쓰고, 1층을 그동안 지역에서 생각했던 주민을 위한 사랑방으로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층은 공간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에게 후원금처럼 받아 월세를 내게 되었다. 결국 우리 가족이 올해 2월에 이사를 오고 3월부터 거북골마을 사랑방을 열 수 있었다.”

- 마을활동가 E(2013년 11월 25일, 서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거북골마을 사랑방을 개원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막연히 마을사랑방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며 언젠가는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과 여러 상황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실현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막연히 ‘공간이 필요하다. 언젠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사람들의 바람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이 공간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 일이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마을활동가 A(2013년 11월 15일, 서울)

거북골마을 사랑방은 2013년 1차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거북골마을 사랑방이 생김으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민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돌봄이 가능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과 상호 작용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된 이후 관에는 자치구마다 마을 관련 담당부서들이 등장하였고, 민간 역시 자치구마다 마을넷이 형성되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마을넷 대표의 연석회의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 차원의 민-관 주체가 형성됨으로써, 서울시마을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마을담당관과 더불어 마을에서 다양한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 민-관, 부

서별, 주민별, 사업 부문 간 교류와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소통기반과 협동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진행 중에 행정과 주민 간의 상호 작용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서대문부모협동조합이 설립한 콩세알 어린이집의 사례만 보아도,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할 때 구청 내에 관계된 부서가 여성가족과, 사회적 경제지원팀, 보육지원팀, 공동체만들기팀으로 다양하다. 모든 부서가 서로 협업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었으며, 부모협동조합과 어느 부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콩세알 어린이집의 개원까지 구의 사회적 경제지원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과 업무를 함께 진행하였다. 어느 부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어느 부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계속 갈등을 빚었다.”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조합원 D
(2013년 11월 21일, 서울)

그러나 갈등도 겪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가 처한 입장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거쳐,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었다.

“행정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들도 부모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르는 것이 많았을 것이고, 전문 컨설팅단이 작성한 서류만 보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주민들이 작성한 서류를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 서대문부모협동조합 조합원 D
(2013년 11월 21일, 서울)

지금까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 관료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민과 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의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과 행정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접촉하고 상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민과 관이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사점과 정책제언

1)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의 특성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합의하고 협력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개발로 지역사회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커뮤니티 개발 이론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에 따라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은 커뮤니티 개발 이론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이사항이 나타났다. 커뮤니티 개발 이론과 서울시 서대문구의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우선 주민모집 단계에서 서대문구는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주민들의 뜻이 모였다.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개인 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연대의식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어 버렸다(정형호 2011).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상호 교환관계를 잘 맺지 않으며 다양한 비공식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 밀접한 상호 작용과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등장하고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리더의 역량과 공식 업무 이후의 ‘뒤풀이’ 자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 주민모집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기보다 만남을 지속하며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주민조직화 단계에서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갖고 모인 주민들이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비정기적이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지속하면서 주민조직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기

표 3_ 커뮤니티 개발 이론과 서울시 서대문구의 공동체 형성 과정의 특성

구분	커뮤니티 개발 이론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	서울시 서대문구 공동체 형성 과정
주민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산 탐색 • 지역사회 리더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풀이’ 자리에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의식 형성 • 역량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모집
주민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지역사회 리더 조직화 •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네트워크 조직 • 스마트폰 메시지를 활용한 의사소통, 비공식적이고 비정기적인 모임 • 기존의 주민자치조직과 마을공동체의 협력
포괄적 계획과 실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 수립한 계획 및 프로그램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업의 계획 및 실행 •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과 상호 작용

존의 주민자치조직과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서대문 마을넷을 형성하며 점차 주민조직화가 가시화되었다. 마을넷은 주로 활동가들이 마을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을사업과 관련된 민간 영역의 대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이 공동체에 참여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포괄적 계획과 실천 단계에서는 주민모집과 주민조직화 단계를 거치며 주민들 간에 쌓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예산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간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점차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로 성장해가고 있다.

2)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시사점

서울시 서대문구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주민모임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서대문구의 사례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소모임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소통과 상호 교류를 가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모임을 통해서 주민 간 관심과 교류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고 있다. 즉, 주민들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상호 교류, 관심, 소속감, 기쁨, 편안함 등을 느끼게 되며, 결국 이것이 공동체로 성장 및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서대문구에서도 다양한 소모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와 함

께 모임들 구성원 간의 활동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주민 소모임으로 시작된 모임이 점점 소모임 구성원이 아닌 주민들이나 외부인들도 참여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주민들과 함께 짬짬방 번개모임이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주민소모임으로 시작된 활동들이 소모임을 벗어난 마을주민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모임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점점 소모임 이상의 활동들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서로의 소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관주도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향적 제도와 예산의 지원에 앞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시작과 시점이 공동체의 형성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마을의 작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마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서대문구의 마을공동체는 집값의 향상이나 기대감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싶은 것이 좋아서 자주 만나면서 마을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공통된 마을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의 작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주민들은 참여에 대한 기쁨과 소속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즉,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작용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서대문구사

례에서도 마을 사랑방을 열거나 협동조합형 어린이 집을 개설하는 등 여러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확대될 수 있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서대문구 내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서대문구 거북골마을 사랑방이 있다. 거북골마을 사랑방은 다양한 주민 모임과 마을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에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 형성은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V. 결론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아직 행정과 민간의 역량이 불균형적이다. 마을주민은 마을 만들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거나 외부인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인 지역사회 개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마을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을주민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민간과 행정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형성이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시의 충분한 계획 수립 역량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사업추

진이 가능하다.

둘째,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이 부족하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들이 수립한 마을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주민들이 세운 계획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면 주민의 참여도 감소하고, 마을 만들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주민들이 지나치게 사업비에 의존하게 되면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이나 사업의 예산지원이 줄어들면 마을공동체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지원 이외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이 기간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실천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마을공동체와 주민, 행정이 모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량적 연구와 같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탐색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대문구는 여러 마을단체들이 형성되고 분화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결합하여 마을주민, 공무원 등이 관계망을 형성하며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을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어떠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개인에게서 얻은 정보에 치중하지 않기 위해 문서자료,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의 방법을 골고루 활용하였으나, 많은 부분 개인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대문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사례를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도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개발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서대문구는 공동체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을 했던 인적 자원이 풍부하였다. 따라서 커뮤니티 개발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서대문구 이외 도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의 사례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rd ed, Oxford: Blackwell.

Christensen J., Robinson J. 1989. *Community Development Perspective*.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DeFilippis, J. and Saegert S. 2008. *The Communities Development Reader*. 2nd ed. London: Routledge.

Gans, H. J. 1968. *People and Plans*. New York: Basic Book.

Hyman, J. B. 2002. Exploring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to create a framework for community building.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 no.4: 196-202.

James, C., Kim F., and Jerry, R. Jr. 1989. Community Development, In James, C. and Jerry, R. Jr. ed. *Community Development in Perspective*.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Ploch, L. A. 1976. Community development in action: A case study.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13, no.1: 1-10.

Singh, S. M. 2003. *Neighborhood Strengthening through Community Building*. Comm-ORG Papers. <http://Comm-org.wisc.edu/papers.htm>.

참고문헌 •••••

구자인, 유정규, 곽동원, 최태영. 2011.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간의 경험과 시스템. 안양: 국토연구원.

김용용. 2008.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 315권: 142-154.

김종일. 2006. 공동체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권, 2호: 57-69.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청.

유창복. 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한국환경절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226.

이규선, 성순아, 황희연. 2012. 청주시 사직2동 마을만들기 단계별 특성연구: 추진사업 및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7권, 4호: 145-157.

이종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다산출판사.

임도빈. 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정부학연구* 15권, 1호: 155-187.

전대욱.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rmstrong, H. W. and Taylor, J.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 논문 접수일: 2015. 1. 21
- 심사 시작일: 2015. 1. 28
- 심사 완료일: 2015. 2. 10

요약

주제어: 커뮤니티, 마을만들기, 형성 과정, 서울시

본 논문은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 도시 지역사회 환경에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탐색적 사례 분석 연구다. 커뮤니티는 지역 내 사람, 공간, 제도 등 모든 사회적 관계의 상호성이 존재하는 장소로, 공간적 관계성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으며, 그간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본 논문은 커뮤니티 개발은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대문구 사례를 심층 인터뷰와 참여 등의 질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주민 모집, 조직화, 포괄적 계획과 실천활동의 과정상의 특징들과 성과들을 분석·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도시 내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 과정에 마을단체들의 분화와 지원사업과의 결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